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1: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붙임 리스트 참고(관계부처 합동)

한국수출을 이끌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

- 주행거리, 충전소,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 3대 애로 일괄해소
  "전기차, '20년 내연기관차량 뛰어넘는 수출주력(누적보급 25만대, 수출 20만대)"
-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20년 누적보급 1만대, 수출 1.4만대)
- 자동차·IoT·AI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반도체펀드 2천억원 조성
- 에너지신산업,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진출 본격화
- 면세점 납품기업, 수출기업으로 인정, 21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 포함

□ 정부는 '16.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 세계적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 상황이 장기화되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커지고 있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연구기관, 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1]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

기본방향

□ **3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이업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수출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② 유지관리(O&M) 등 제조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③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확대

Indus

□ **정부는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유망수출품목 창출을 지원한다.**

①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하여 기업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②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
③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의 집중지원
④ 이업종간 융합을 촉진하는 플랫폼 제공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한다.

○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금년중 완비하고, 전국의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

○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하여 **즉시 시행**하고,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①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 → 1,400만원), ②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추진, ③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④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⑤보험료 경감, ⑥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

□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 내년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18.1월에는 **6천만원대 경쟁력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금년중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를 **'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설계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 시스템반도체는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에 비해 세계시장 규모가 3배가 넘고 IoT, 인공지능 발전으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

Indus

○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천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석유화학-조선

□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다음과 같은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철강)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자동차 차체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온실가스를 15% 감축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석유화학)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가격기준 일반염료 대비 2천배 가격)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

(조선) 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
e-네비게이션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LNG 선박연료 사용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한다.

○ **조선의 경우 기업의 R&D 참여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유망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중국, 중동 등 후발국들의 석유화학, 철강 등 **플랜트 운전·유지관리 서비스(O&M)** 지원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관련 서비스시장진출도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한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시행을 앞두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선박 개조·수리업에 중소형 조선사들이 사업전환** 등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조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제품-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

□ **(친환경제품)**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상품 반영, 우수 친환경제품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도 강화한다.

□ **(에너지신산업)** 핵심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기업들이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도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1M 이하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초대형건물의 전기요금 상계허용, 자가용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허용, 발전소 신재생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당초 계획보다 0.5~1%p↑) 등을 통하여 **'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 태양광과 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ESS 보급을 늘려나가고, '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전기·가스 AMI를 보급한다.

○ 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기기의 수출확대는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여러 기기와 운영시스템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Indus

□ **(스마트시티)** 에너지 융합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중동·아시아·남미**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모델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 스마트신도시, 에너지신산업, 친환경물산업, 스마트교통, ICT 솔루션 모델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 참고

프리미엄 소비재

□ 중간재 위주의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 도시화 등으로 시장 유망성이 큰 소비재 수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업계의 당면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1차 소비재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16.1~5, 7.9%↑),

○ 소비재 업계가 **대부분 영세**하고 **브랜드·기술력을 모두 갖춘 곳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소비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 세계 100대 명품 소비재 중 한국기업은 1개(MCM)에 불과(Deloitte, '15)

○ 앞으로 프리미엄 제품개발,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비관세장벽 해소, 한류마케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화장품) 고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고속 성장 중인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능성 인정 신청도 허용하여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개발 기반을 확충한다.

○ **천연화장품**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 및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산학연간 신기술 매칭을 통한 제품상용화 지원 등 다양한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역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상담창구 및 위생허가 교육과정 신설, 정보 제공, **정부간 고위급 협력 등 다각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란 순방성과 : 우수제조소(CGMP) 실사 면제('16.12)

□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가 등 제도 개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약가를 우대하는 동시에 약가 협상기간도 절반으로 줄인다.

○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p 가산**하고, 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약가 우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확대한다.

Indus

○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 **(농식품)** 민간의 낮은 R&D 투자와 낮은 프리미엄 인지도, 높은 가격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 고품질, 첨단 기술로 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프리미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① **첨단기술 접목 및 R&D 강화**, ② 콜드체인, 항공운송 등의 **물류기반 확충**, ③ 유기농 등 **프리미엄 인증 강화**, ④ 시장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검역·위생협상** 및 ⑤ **한류콘텐츠 연계 홍보**, 공동 브랜드를 추진한다.

○ **국가별·품목별 수출확대** 방안으로 ① (**중국**) **삼계탕, 쌀·김치, 분유**를 주력품목으로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하며, ② (**일본**) **파프리카,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 ③ 중동, 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과 ④ 신규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시장테스트, 상품화, 유통,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한다.

□ **(수산물)** 전복, 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출판로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외해양식 등 **첨단 양식시설 확충**, 대규모 양식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 대중국 활전복 수출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 제작, 중국 진출 물류기업과의 협업** 등 신선수산물 특화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O2O시장 진출** 등 신판로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2] 현장 수출애로 해소

□ 그간 경제외교, 통상장관회담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수출애로 추이(건) : ('13) 327건 → ('14) 285건 → ('15) 241건

□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는 창의적 대안 모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인 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해결된 주요 애로는 다음과 같다.

① **면세점 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

➡ **수출로 인정, 하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② 전세계적인 **비관세장벽 확산** 추세

➡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 책임관을 지정하여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컨설팅 실시

➡ **양자·다자간 모든 채널을 총가동**하여 최우선적인 해결 지원

③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광고규제**(크기제한 등)를 **완화**하고, 간접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3] 향후계획

□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하여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9월), 산업발전비전(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Indus

[붙임1]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 세부추진계획

[붙임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1]

전기차 · 수소차 발전 전략 세부추진계획

◈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와 수소차 1만대를 국내에 보급하고, 전기차 20만대와 수소차 1.4만대를 수출

◈ 전기차(EV)와 수소차(FCEV)는 차량 특성에 맞게 상호 보완 발전

- (전기차) 가정용, 도심용 (수소차) 운행거리 긴 차량 중심

【전기자동차】

⇒ **(국내) '20년에 국내 신규차량의 5%**(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

⇒ **(수출) 주요국가의 전기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및 연비규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 **모든 장소**(아파트, 공공장소 등)**에 완벽한 충전인프라 구축**

❖ **선제적이고 대대적인 충전소 구축을 통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 **'16년말까지 아파트에 완속 3만기를 설치하고, 서울·제주는 반경 2km 이내, 이외 지방은 8km이내에 공공 급속충전기 완비**

* (서울) 464km², 충전기 누적 174기, (제주) 975km², 충전기 누적 276기(cf. 주유소 225개소)

○ **(아파트)** 한전이 **전국 공모를 거쳐 4천개 아파트를 선정**하여 **단지당 최대 7기의 충전기 설치**('16년, 1,000억원)

* 선정기준: ①전기차 이용자수, ②아파트 관리단 적극성, ③입주민 합의 등

- **(충전기 배분)** 아파트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기 2만기, 고정형 충전기 1만기** 구축

* (충전속도) 고정형 7kW, 이동형 3.3kW, (1기당 비용) 고정형 800만원, 이동형 100만원

Indus

- **(신청내용)** 주민합의 과정을 거쳐 **수량한도 내에서 원하는 충전기 유형과 신청규모를 한전에 신청**

- **(과금 방식)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한전이 별도의 충전요금을 **이용자에게만 과금**

○ **(공용)**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주유소·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대폭 확충**(490기: 한전 300기, 환경부 150기, 민간 40기)

* (공공 급속충전기 수) '15년: 531기 → '16년: 1,021기 → '17년: 1,500기 ⇒ '20년: 3,000기(누적)

* 전기차 대비 공공 급속충전기 수('15) : (미국) 60대당 1기, (노르웨이) 87대당 1기, (한국) 14대당 1기('16년 말)

- **(한전)** 서울·제주(각 120기)를 중심으로 차량 접근 용이성,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주요 거점에 설치**

- **(환경부) 고속도로 휴게소·지방도시** 등을 중심으로 구축

○ **(규제완화)** 주유소 내에서도 주유기로부터 6m이상 거리 확보시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실질적으로 설치 불가(방폭 성능을 갖춘 충전기만 설치할 수 있으나, 상용제품이 없고, 2배 이상의 가격)

○ **(요금할인)**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중인 **충전 기본료 50% 감면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16~'17) (기본요금 2,400원/kW → 1,200원 /kW)

* (대상)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전기차 충전기(약 6천기)
(효과) 연간 약 13억원 할인

-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 급속(50kW) 1기당 연간 전기요금 185만원 절감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제도 마련**

❖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만족감"을 주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신규수요 창출**

○ 전기차의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 → 1,400만원) **즉시 시행**

-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제감면***(취득세, 도시철도채권매입) 확대 추진

○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실시**

* (전국) 50% 이상 의무, (서울) 층전시 1시간 무료(10월~), (제주도) 전면 무료 추진

○ 동급 내연기관보다 2배 비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 **전용보험을 신설**하고,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전기차 식별 강화('16말~)

○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한시적 운행** 허용 검토

○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포함) **구매비율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16.6~)

□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차량 성능개선과 모델 다양화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을 대신하여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도 향상**

○ **(성능 향상)** 1회 충전시 주행거리를 대폭 확장한 **新모델**을 **출시**('18년 320km 이상, '20년 400km 이상)하고 차종도 다양화

○ **(트럭) 1톤 전기트럭 개발**('18년) 후 우체국·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

* 전기차에 대한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 및 증차 허용('17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급 확산

○ **(배터리)** 주행거리 향상의 가장 큰 관건인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로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해 배터리 성능 향상

* 기술개발: (기간) '16~'20, (규모) 270억원(국비), (효과) 150Wh/kg → 300Wh/kg

Indus

【수소전기자동차】

⇒ **(국내) '20년까지 1만대 보급, 버스·택시 등 상용차 중심으로 시장규모 확대**

⇒ **(수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주요국의 내수시장 공략**

□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 유지**

❖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경쟁력 확보 및 차량 가격 저감으로 개인보급 본격화**

❖ **수소버스 개발 및 보급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

* 수소버스는 경유승용차량 5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

○ **(수소버스)**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개발('17년초 출시)*하고 실증·시범을 거쳐 **조기양산 체제 구축**(당초 '21년 이후 → '19년)

- 정부는 수소버스에 탑재되는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수소버스용 전해질막·수소용기 등 개발('16~'20, 국비 85억원)

○ **(수소승용차)** 차세대수소승용차 전용모델을 **경쟁력 있는 가격(6,000만원대)으로 조기에 출시** ('18.4월 → '18.1월)

< 수소전기차 모델 비교 >

차량명	출시시기	차급	주행거리 (미국기준)	차량가격 (세금포함)	차량
투싼ix (현대)	'13.2월	SUV (중형)	426km	8,500만원 ('15)	
Mirai (도요타)	'14.12월	세단 (중형)	502km	724만엔 ('14) (7,779만원)	
Clarity (혼다)	'16.3월	세단 (중형)	483km	766만엔 ('16) (8,234만원)	
차세대모델(FE) (현대)	'18.1월	SUV (중형)	560km	6,000만원대	?

○ **(수소충전소)** 수소 농도센서, 저장용기, 급속 냉각장치, 디스펜서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제고**('16~'20)

* 수소충전소 시장 미형성으로 충전소 부품 국산화율 저조

□ 수소차를 이용한 시범·실증사업

❖ 일반인의 수소차 이용경험 확대, 對국민·對세계 홍보 강화

* (카쉐어링) 1대당 연 1,000명 운전경험 (택시) 1대당 연 10,000명 승객체험 가능

※ 차량은 세계 최초로 양산('13년)되었으나, 비싼 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일반인이 수소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카쉐어링: 광주) 전국 최초 수소차 활용 카쉐어링**(15대 규모) 추진

* (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업체, (장소) 광주송정역 주차장 중심, (이용) KTX 승객

- 旣 구축된 충전소(진곡)와 구축중인 신규충전소(광산)를 활용

○ **(수소택시: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해 수소택시사업 실시(20대 규모)

- 旣 구축된 충전소(매암) 및 구축예정인 신규충전소(장소 미정)를 활용

○ **(수소버스)** 울산 등에서 실증·시범운행을 실시('17~'18)하고 **정규노선 버스 도입 추진** ('19년~)

- CNG 버스 사업자가 수소버스를 일정대수(예: 5대) 이상 도입하는 경우 **버스 구매보조금 및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19년~)

* 지원내용: (대상) CNG + 수소 융합충전소, (내용) 수소생산용 가스요금 할인

* 現 CNG 수송용 대비 35% 할인 적용 (607.22 원/㎥ → 395.47 원/㎥)

Indus

□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를 통해 수소충전소 본격 확산

☛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설치 비용 저감 및 민간 투자 본격화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16년 10기 → '20년 100기)

○ **(규제완화)** CNG·LPG와의 융·복합 충전소 및 설치·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 허용

* 「융·복합 및 이동형 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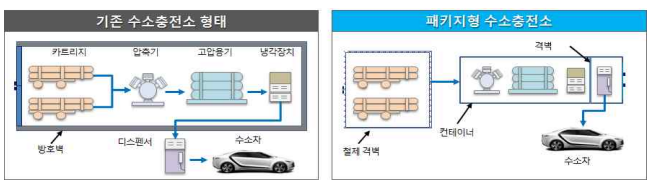
- **(융·복합 충전소)** 방호벽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할 경우, **충전소와 보호시설 및 설비간 안전거리 완화**

* (운영방식) 기존 CNG 충전소에 개질기를 설치하여 수소 생산(전국 CNG 충전소 194개)

- **(패키지형 충전소)** 압축·저장·충전 설비를 모듈화하여 기존 대비 **설치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 허용**

* (효과) 충전소 설치 비용 저감 및 설치기간 단축, 이동설치 가능

< 패키지형 충전소 개요 >



○ **(수소 얼라이언스)** 민관 공동으로 수소얼라이언스를 구축, 수소충전소 확산 로드맵 구체화 및 SPC 설립을 통해 투자 확대

* SPC 출자주체: 완성차, 수소 생산·유통업체, CNG업계, 가스공사 등(정부는 설치보조금·저리융자 등 지원)

[붙임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산업부		무역정책과	박성택(044-203-4020)	김용운 사무관(044-203-4024) 임미정 사무관(044-203-4022)
제조 융합 · 에너지 환경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이원주(044-203-4320)	김기열 사무관(044-203-4322)
		전자부품과	안세진(044-203-4270)	전동욱 서기관(044-203-421)
		전자전기과	김종주(044-203-4340)	김헌태 서기관(044-203-4344)
		조선해양플랜트과	유법민(044-203-4330)	김은성 사무관(044-203-4335)
		철강화학과	김종철(044-203-4280)	한종호 사무관(044-203-4284) 박태규 사무관(044-203-4282)
		전력진흥과	김성열(044-203-5260)	김태현 사무관(044-203-5264)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문양택(044-203-4240)	장혜정 사무관(044-203-4248)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이귀현(044-203-5390)	김인곤 사무관(044-203-5394)
	환경부	환경산업과	안세창(044-201-6701)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소비재	산업부	무역협력과	이원희(044-203-4840)	조우신 사무관(044-203-485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043-719-3401)	이성민 사무관(043-719-3402)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044-202-2901)	심은혜 서기관(044-202-2903)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전한영(044-201-2171)	강효주 사무관(044-201-2172)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공두표(044-200-5480)	이인자 사무관(044-200-5481)
스마트 도시	국토부	도시정책과	김규현(044-201-3715)	임월시 서기관(044-201-3707)
		도시경제과	김기대(044-201-4845)	황세은 사무관(044-201-4878)